

합동과 통합측의 분열에 대한 교회론적 분석과 평가

-갈빈의 교회론에 비추어-

양낙홍 (고신대/역사신학)

서론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어느 교파 할 것 없이 다 맹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난립상이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 개신교회의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회들이다. 한 교파의 교단이 한 나라에 1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불명예요 수치이다. 아무리 미성숙하고 신학이 부재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처럼 함부로 찢어 나누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풍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교단 분열이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 왔다고 주장한다. 교단이 나누어진 결과 교세 확장을 위해 경쟁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결과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수적 성장이 과연 교단 분열의 부산물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최소한 그것은 검

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반면 교단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는 명백할 뿐 아니라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 개척 교회의 난립, 낮뜨거운, 그리고 목회 윤리가 실종된 교인 쟁탈전, 신학교 난립으로 인한 교육 수준의 하락, 목사 후보생 양산과 신학생 표준의 하향 조정으로 인한 교역자 자질 저하, 장로교단이 대한민국에 하나 뿐일 때와 비교하여, 무수한 장로교단마다 언론 기관이나 총회 본부 등의 기관을 설치할 때 그 경제적 낭비뿐 아니라 그 수준의 불가피한 하락, 교단마다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 재단 이사회 등을 두게 될 때 그 구성원들의 자질의 저하, 신도시 등에 개척 교회가 집중할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교단 별로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과다 경쟁으로 인한 모든 교회들의 부실과 약체화, 목회자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목사 권위의 하락, 수는 넘치지만 질은 낮은 목회자들에 대한 평신도들의 불만과 도전으로 목회자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 시골의 수많은 약체 교회들마다 은퇴 목사가 늘어나나 교회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그들의 노후를 전혀 보장해 줄 수 없는 목회자 노후 보장 문제 등 교단 난립은 한국 교회를 부실화하고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개개의 목회자 권위 하락 문제 뿐 아니라 개신교 전체의 권위 하락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 마디로 장로교를 비롯한 한국 개신교회들은 그 덩치에 걸맞는 권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¹ 개신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천주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덩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비중에 있어서는 천주교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하여 덩치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신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교단들로 난립되어 있어 통일된 목소

리를 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오합지졸들 같은 인상을 사회에, 특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층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된 견해를 표현하지 못하고 저마다 아우성을 치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집단의 견해는 외부인들에게 비중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가 개신교회를 그 외형적 규모에 상응하게 대접하지 않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신교회들 자신의 책임이지 그렇게 반응하는 사회의 책임이 아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백개의 장로교단들이 한결같이 저마다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 대부분의 교회관은 칼빈의 그것과 전혀 달라 보인다. 신학의 핵심들 중 하나인 교회론에 있어 칼빈의 견해와 정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칼빈주의 전통의 가장 충실한 상속자들이라고 외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한국 장로교단들에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에 대해 칼빈이 가졌던 그 집요한 열정과 애착을 좀체 발견할 수 없다.

한국 장로교회 분열의 대표적 케이스는 합동과 통합의 경우이다. 그런데 이 두 교단의 분열은 과연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는가? 혹 그것은 뚜렷한 명분도 없이 단지 감정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혹은 인간적인 요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가? 필자는 이 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접근 방법

그동안 통합과 합동 교단의 분열에 대한 진술들은 여러 관계자들에 의

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양 교단에 속한 학자들이나 역사가들, 혹은 관측자들이 이런 저런 문서에서 그 분열 과정에 대해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기술했다.² 그러나 그러한 글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술들이 대부분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교단의 출발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자초지종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진술한 성의있는 기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사건의 전모가 아닌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이처럼 단편적인 자료들을 모아 하나의 일관되고 연결성있는 진술을 구성하고자 한다. 물론 기타 입수 가능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그림을 완성하고자 한다. 자료가 단편적이고 때로는 흠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마치 퍼즐 맞추기와 흡사한 면이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특별하고 새로운 것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건전한 상식과 성숙한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지 혹은 민망해서 공론화하기를 꺼렸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덕스러운 태도라는 개인 윤리 의식 때문에, 혹은 굳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수치스러운 과거들을 언급하는 것은 어리석은 처세술이라는 계산 때문에 거론하기를 꺼렸던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양성화한 작업이 이 글이다. 중요한 역사의 진상이 언젠가는 밝혀지고 평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보다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앞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함이다. 그것은 양 교단의 분열과 출범에 대한 기록들이 진실의 규명보다 자기 정당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진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사가들이 다소 “어용적”인 냄새를 풍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기술들이, 역사적 진실 여부를 떠나 자파 정당화에 급급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어떤 기술들은 자기 측의 과오에 대해서는 생략하거나 극히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감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사건에 대한 사실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 많은 경우 맹목적으로 저쪽 교단이 잘못되었고 자기 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식의 일방적, 혹은 ‘아전인수식’ 진술이 지배적이다. 이 주제에 대한 글들 가운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당파성을 초월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진술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³

두말 할 것 없이 이러한 과당적인 태도는 역사가로서 옳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비양심적인 것으로서 한국 교회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내가 속한 교단이니까 무조건 정당화시켜야 하고 그 역사를 미화해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미성숙성일 뿐이다. 물론 현재의 한국 교회 형편에서 특정 교단 소속 역사가들이 자기 교단 분열사를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데에는 아마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있었던 그대로의 정직한 역사 기술을 용납할 수 있는 정직성과 성숙성의 결여로 인해 혹 누군가가 자기 교단의 과오를 사실 그대로 적시하면 당장 마녀 사냥 내지 인민 재판에 회부할 것 같은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자체 내에서의 진실한 역사 기록의 출현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교단 자체로부터 정직한 역사 기술이 시도되기 어렵다면 제3의 입장에서 서 있는 역사가들이 그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타 교단 역사가들

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교단의 압력 및 역사가 본인의 편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통합 합동 양 교단과 무관하고 그 어느 쪽과도 이해 관계를 전혀 갖지 않은 제3의 교단 사람으로 양 교단의 분열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입수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두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두 교단의 분열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합동과 통합의 분열 과정 분석

50년대 초 고신측과 조신측 소위 “양극단”을 제거한 한국 장로교회 주류는 이제 신학적으로 온건한 중도 보수로 통일되어 교회의 평화를 이룬 것 같았다. 그러나 공존의 능력이 박약한 한국 장로교인들은 불과 몇 년 못 가서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대립 관계를 연출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교회 분열이라는 비극적 파국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합동과 통합의 분열을 초래한 요인으로 세 가지가 제시된다. 그것은 박형룡 박사가 관련된 삼천만환 사건,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 문제, 경기노회 총대 선거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영헌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각각 별개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⁴ 이 사건들을 자세히 검토하기 전에 오랜 세월동안 그 사건들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 가지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요소를 이해함이 없이는 그 세 가지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로교회를

합동 통합으로 찢어 놓는 직접적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장차 양대 그룹의 수장이 될 두 사람 사이에 뿌리 깊은 갈등과 불화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형용과 한경직

통합측과 합동측의 분열 이면에는 한경직으로 대표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그룹과 박형용으로 대표되는 보다 보수적인 그룹의 존재가 근원적인 갈등 요인으로 잠복해 있었다. 김요나가 지적하고 있듯, 당시 “신학적 노선은 한경직 대 박형용의 양대산맥으로 진보냐 보수냐 하는 데 따라 지지 세력의 분포도가 달랐다.”⁵ 에큐메니칼측을 대표하는 한경직 목사⁶와 NAE측을 대변하는 박형용 박사는 장로교 분열을 촉발하는 직접적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 이미 수십 년 동안 개인적으로 갈등과 충돌 관계에 있었다.

박형용의 신학 노선

박형용은 아직 프린스턴이 소위 “좌경화”하기 전인 1923-26사이에 그 곳의 신학사와 신학 석사 과정을 동시에 공부했다. 그 시기는 미장로 교회의 신학적 노선 갈등이 절정을 달해 치달아 가던 무렵이었다. 그는 프린스턴에서 결국 진보주의가 결정적으로 득세하기 직전인 1926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보다 더 보수적인 켄터키 루이빌의 남침례교 신학교로 진학했다. 프린스턴에 있는 동안 박형용은 학문적으로 그레삼 메이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다. 학문적으로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박형

룡은 메이천에게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여 생활이 아주 어려웠을 때 그는 메이천의 개인적 재정 지원으로 살아가기도 했던 것이다.⁷

훗날 박형룡의 신학은 더 극단적으로 보수화되었다. 그는 심지어 복음주의 단체인 NAE와 WEF까지도 새로운 “자유주의”요 새로운 “이단”이며 “용공적”이라 부정하고 오직 극단적 보수주의자요 분리주의자인 칼 매킨타이어의 ICCCM만을 인정했다.⁸ 근본주의의 약점을 극복하고 복음주의의 권토중래를 꾀하는 의욕적 움직임으로 194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인 신복음주의마저도 박형룡에게는 “이단 신학”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런 극단적 보수의 관점에서 한경직의 신학 성향이 어떻게 보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경직의 신학 노선

한경직 목사의 전기를 쓴 한승홍 교수는 현재 통합측의 신학은 “한경직의 신학 성격과 성향에서 표출되고 규정된 신학”이라 볼 수 있다고 단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의 신학 노선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평가한다. “그의 신학 입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⁹ 그것은 좋게 말하면 그의 신학이 온건 중도이기 때문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그의 신학적 입장에 일관성이나 선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경직 목사가 노골적 자유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인은 오히려 스스로 보수주의자라 자처했다.¹⁰ 한목사는 올바른 신앙 노선을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것을 보면 그 자신이 보수주의자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그 네 가지 노선 중 첫 번째는 “복음주의 신앙”이요 두 번째는 “청교도적인 생활”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해에 의하면, 복음주의 신앙이란 “이신칭의” 교리였다. 다시, 그 신앙은 성경 중심적 신앙이었는데 한목사는 성경의 중심을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진리”로 보았다.¹¹ 한 마디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들이 한경직의 신앙 노선이었는데 그것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의 표어들이었다. 그렇다면 한목사의 신학을 자유주의적이라 부르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한목사는 자신을 신신학자로 부르는 것에 분명한 반대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보수적”이라고 주장했다.¹² 그는 자신이 신신학으로 오해받는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송창근, 김재준 두 사람과 인간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지만 신학 사상은 그들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렇다고 그가, 본인 주장처럼,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빙돈 단권 주석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것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은 그가 보수적 정통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쯤 되는 신학 노선을 가졌다고 본다. 한승홍은 그의 신학 노선을 “온건한 신정통 보수주의” 정도로 말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¹³ 한경직의 이러한 성향은 이미 젊은 시절에 표출되었다. 그가 프린스턴에서 3년간 공부했던 1920년대 후반(1926-29)은 바로 그 곳의 보수 진보 갈등이 극에 달했다가 결국 진보주의자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던 때였다. 보수 진영의 수장이던 메이첸은 1929년에 프린스턴을 떠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다. 이러한 갈등의 와중에 프린스턴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보인 반응은 다양했지만 한경직 목사는 메이첸을 따라 웨스트민스터로 가지 않고 프린

스틴에 남는 쪽을 택했다. 자유주의를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던 프린스턴 진보파의 입장을 따르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다.¹⁴ 그러한 선택에는 그의 신학적 성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인 1930년대 중반 아빙돈 주석 번역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한경직은 다시 다소 진보적 성향을 노출했다. 1935년 제 24회 장로교 총회에서 한경직은 김재준, 송창근, 채필근 등과 함께 아빙돈 단권 주석 번역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죄당할 뻔한 위기에 몰렸던 것이다. 당시 평양 신학교 교수로 있던 박형룡은 그 주석을 전체적으로 살핀 후 “모든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집대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¹⁵ 나아가서 그는 그 주석이 성경의 고등 비평 방법을 채용하고 계시를 종교신학론적으로 분석한다는 이유로 번역에 가담한 자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룡의 주장을 받아들인 총회는 각 노회가 조사한 후 번역에 참여한 이들이 각각 그 “목적과 사상을 기관지를 통해 표명케” 할 것을 결정했다. 채필근 목사는 그 지시를 따라 자신이 그 주석 번역에 참여한 것을 사과했다. 그러나 한경직은 자신이 번역한 고린도전후서 부분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¹⁶ 김재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주석의 신학적 입장에 동조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비록 번역자들이 주석의 전체적 성격을 파악하고 번역에 착수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¹⁷ 한경직 목사의 신학 사상이 박형룡의 그것과 같은 엄격한 정통 보수는 아니었음에 분명하다. 반면 이 때 난파될 뻔 했던 같은 배를 탄 김재준과는 동지 의식을 갖게 된 반면 자신을 공격하는 데 선봉이 된 박형룡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기를 같이 통과한 사람과는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

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총회의 결의를 좇아 각 노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결국 세 사람의 역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적당히 표명한 채 넘어갔다. 1935년 10월에 간행된 『신학지남』 17권 제6호에는 그들이 낸 성명서가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자신들이 집필한 부분은 장로교 신경에 위배됨이 없다. 즉 “우리가 쓴 글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둘째, 자신들은 타인들의 집필에 관여한 바 없다. 즉 “우리는 단권 성경 주석 전체로서의 편집에 관여한 바가 없다.” 셋째, “우리 글 때문에 교회가 소란하다는 데 대하여는” 집필자의 일원으로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었다.¹⁸

이것이 한경직과 박형룡의 신학적 충돌 중 첫 번째 경우였다. 한경직 박형용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은 이 때 파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총회를 좌지우지하던 박형용 계통의 보수주의 세력에 대한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포고문”이었다.¹⁹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에 드물었던 미국 유학과 지도급 목사들 사이의 논쟁, 소위 한국 장로교 안의 별들의 전쟁이 교회의 평화를 깨뜨릴 것을 두려워한 총회는 그러한 성명서를 총회 결의에 대한 순복이라 좋게 받아들이고 넘어 갔지만 박형용 박사는 한경직 목사의 신학이 자유주의의 냄새가 난다고 의심했을 것이고 한경직 목사는 박박사가 시대에 뒤떨어진 답답한 보수주의자라고 불만을 가졌을지 모른다.

한경직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은 일찌기 1939년에 서울에 설립된 조선 신학교 이사진에 참여한 데서도 드러난다. 몇 년 후 조선신학교에 대항하는 신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는 데 앞장서게 될 박형룡 같은 인물이 한경직의 조선 신학교 경력을 불만스럽

게 받아들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실제로, 1948년 장로교 신학교 설교에서 박형룡은 조선신학교가 첫째, 신사참배에 가담하여 일본적 기독교로 화했고, 둘째, 자유주의 신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통 신학교가 될 수 없다고 조선신학교를 정면으로 부정한 바 있다.²⁰ 이 일 한 가지만으로도 양자는 피차 편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50년대 초에도 두 사람의 마찰의 기회가 없지 않았다. 김재준 교수와 조선 신학교의 처리 문제를 두고 김재준과 같은 경기 노회에 속한 한경직 목사는 노회로 더불어 총회에서 그에 대해 우호적이며 옹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국신학대학 교수 김재준 목사는 목사직을 박탈하고 그의 소속 노회인 경기 노회에 제명을 지시하여 이를 선포케 한다”는 제37회 총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노회는 38회 총회에서 그를 파직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던 것이다.²¹ 물론 총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김재준 목사를 파면하는 표결을 강행했지만 이 때 박형용 박사가 김재준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진영의 수장이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에큐메니칼측과 NAE 측을 대변하는 두 사람 사이의 마찰과 갈등은 그 역사가 적어도 3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해묵은 것이었다. 합동과 통합의 분열은 이러한 양자 사이의 배경을 제외하고서는 충분히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경직을 비롯한 그 측의 인사들은 박형룡과 달리 자신의 신학 노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표현할 필요나 기회가 많지 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비록 신학적 신념이 성향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표출되어 보다 보수적인 그룹의 그것과 마찰을 일으킬 일은 거의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한동안 그들은 한 교회 내에 공존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년 묵은 양자의 상호 불만이나 의심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발생하면 그러한 불편한 감정은 강한 발산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한 반목이 표면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박형통 박사가 관련된 삼천만환 사기 사건이다. 만일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장로교의 또 한 차례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훨씬 지체되었을 것이다.

삼천만환 사기 사건

이 사건은 물론 박박사의 의도의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한계, 특히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의 윤리적 약점을 노출한 사건임에는 분명했다. 동시에 그것은 지도자들을 포함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커녕 오히려 그것의 부패한 관행과 사고 방식에 의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즉 당시 교회가 사회를 복음화하는 대신 사회에 의해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6. 25 동란 중 총회 신학교는 대구에 있었으나 서울 수복 후인 1953년 서울로 귀환하여 일제 시대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로서 피난 전에 사용하던 남산의 교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의 당면한 과제는 정식 대학 인가를 받는 것이었다. 아직 각종 학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징집 연기의 혜택을 얻지 못해 언제 징집되어 일선으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재학생들의 형편도 딱했고 이미 대학 인가를 받은 한국신학대학이나 감리교 신학대학과의 경쟁 심리에서라도 문교부로부터의 대학 인가 획득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그러나 국립 공원의 일부일 뿐 아니

라 국회가 의사당을 짓기로 되어 있는 남산의 일부를 불하받는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장소를 찾고 있던 신학교가 갑자기 방침을 바꾸어 다시 남산 기지 불하를 추진하게 된 것은 학교 당국이 갑자기 등장한 한 인물에 의해 한국적인 격려를 얻었기 때문이었다.²²

1953년 9월 교장으로 취임하여 학교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박형룡은 회계 김창준 장로로부터 장로 직함을 가진 박호근이라는 인물을 소개받았다. 그는 자기가 송의학교가 현 남산 중턱의 부지를 불하받게 해 준 장본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이재학 국회 부의장, 인태식 재무 장관을 잘 아니 나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다.²³ 이러한 허풍에 넘어간 박교장은 두 달 동안 조금씩 조금씩 삼천만환에 달하는 거액의 학교 기금을 교통비, 접대비, 교섭비 등의 명목으로 이사회 승낙 없이 박에게 지불하면서 현재 사용 중이나 적산인 남산 기지의 불하를 위한 정부와의 교섭과 건축 허가 및 대학 인가 취득을 부탁했다.²⁴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부끄럽고 부도덕한 방식으로 통하는 수단, 즉 “정부 요인들에게 뇌물”을 줌으로 남산 신학교 부지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²⁵

박박사가 신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방법의 사용까지 불사하려 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처신이었다. 당대 최고의 신학적 권위를 가진 학자가 세상의 때묻고 부정한 사회의 관행을 통해 학교를 세우려 했다는 것은 과연 한국에서 정통 보수 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한국 보수 교회들이 기독교 윤리로 훈련될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 준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는 종교적인 목적, 즉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무엇이 동원되든 상관없다는 사고가 흔하기 때문이다. 소위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정직성과 양심 같은 윤리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국가의 법률과 사회의 규범을 무시한 채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식의 사고가 아직도 한국 교회에 많이 남아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실정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 안의 법만이 아니라 정당한 모든 법을 존중하는 모범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선해야 한다. 아무리 신학교 설립이라는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도덕한 수단의 사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리 없다는 극히 초보적인 영적 진리를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생각치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당연히 기지는 불하되지 않았고 박교장은 박호근에게 속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교활한 박호근은 사기 혐의로 제소당하지 않기 위해 선수를 쳤다. 미국에서 온 일만 달러를 암시장에서 교환한 일을 꼬투리 삼아 도리어 박교장과 총무처장을 상대로 먼저 고소를 제기했다. 박교장은 망신당할 것이 두려워 박호근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 문제를 얼버무리려 했다.²⁶ 그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학교가 박호근을 고소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학교 당국자들이 어떻게 검찰에 “학교 부지를 불하받는 것이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뇌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박호근에게 삼천만원의 공작금을 지급했는데 일이 성사되지 않고 돈만 없어져 버렸으니 그를 처벌하고 돈을 돌려 받게 해 주시오!” 할 수 있었겠는가?

일이 이렇게 되자 난처해 진 것은 박박사였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책

입을 져야 했다. 그 사건이 고의가 아니라 “학교를 세우겠다는 의욕이 지나쳤기”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였던 것은 사실이었다.²⁷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로서 부도덕하고 부패한 시도에 연루, 가담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윤리적 결함을 노출한 셈이요, 게다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막대한 교비를 처분한 결과 학교에 심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책임이 있었다. 한 마디로 그는 비윤리뿐 아니라 불법을 행한 셈이었다. 그리고 그 불법은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양면에서였다.

1957년 12월 5일 제28회 실행이사회는 교장과 총무과장의 사면 건을 이사회에 넘기고 특별경비 지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²⁸ 1958년 3월 7일 대전에서 열린 이사회는 박형룡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이 사표 수리도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이사 42명 중 38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20:17, 기권 1로 결정되었다는 데에서 입증된다.²⁹ 이사회는 후임 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박박사가 교장 사무를 계속 보게 하면서 후임 교장 인선 위원을 선교사 대표 3인 (인톤, 감부열, 감이도), 실행 이사 대표 3인 (김윤찬, 김재석, 그리고 전필순: 미참 경우에 노진현), 전체 이사 대표 3인 (이승길, 김형모, 김석진) 총 9인을 선정했다. 후임 결정은 전체 이사회에서 2/3의 가표가 있어야 하며 9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제3대 교장은 일러도 10월 초에나 취임할 수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박 박사가 계속 집무할 것도 결의되었다.³⁰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박교장이 교장 사무를 계속 보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동년 5월 5일 실행이사회는 박박사가 교장 명의로 계속 보유하되 사무는 명신흥(내무), 계일승(외무) 두 사람에게 각각

맡게 했다. 그러나 사태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박박사는 다시 6월 18일, 서울에서 모인 실행 이사회에 호소했고 동 이사회는 후임 결정 때까지는 박형용 교장이 계속 집무하게 한다는 대전 이사회 결정을 취소하고 교장 사무 임시집행위원 3인 (노진현, 이권찬, 양화석)을 선정했다. 대신 박박사는 명예교장겸 교수로 계속 남아 있게 했다.³¹

1958년 9월 서울 영락 교회당에서 모인 제43회 총회는 박형용 박사의 교장직 사면을 인준하고 그를 명예 교수직에 임명하면서 총회장 노진현 목사를 교장 서리로 임명하면서 학교 실무를 계일승 목사가 담당케 했다. 총회에서의 이사회 결의 보고에 의하면 “박형용 교장께서 교장직을 사임 하셨으므로 이를 수리하였사오며 ... 후임 교장이 선출될 때까지 교장 대리는 총회장 (노진현 목사)으로 하되 이사장이 협동케 하였사오며”로 되어 있다.³² 이사회는 박형용 박사를 신학교의 명예 교장 겸 교수로 추대키로 한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총회의 재가를 요청했으나 그 제안은 부결되었다. 이 보고를 마친 후 신학교 이사들은 삼천만환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원 사임했다. 일부 이사들이 삼천만환 사태의 진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여 일을 바로 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었다.³³ 총회는 재정에 대한 7인 조사위원을 선정키로 하고 그 인선을 공천부에 일임하였다. 박형용 박사는 학교에서 물러났고 그가 맡고 있던 조직 신학은 김규당 목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삼천만환 재정 사고는 그럭저럭 수습되는 듯 보였다.³⁴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체로 상식적인 마무리였다.

NAE 측 인사들의 위기감과 대응

그러나 이러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지도급 인사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소위 NAE 측이라 불리우는 보수적 신학 신념의 소유자들이었다. 여전히 그가 교장 직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박형룡 박사의 재기를 시도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43회 총회는 신학교 이사 전원을 해임함으로 삼천만환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게 했고 총회 직후 있을 가을 노회에서 이사들을 새로이 선정하게 결의한 바 있었다. NAE측은 바로 이 노회에서 박박사의 지지자들이 다수 이사가 되게 함으로써 그의 복귀를 성사시키려 했다. 그리하여 자파의 승리를 위해 치열한 선거 운동을 전개했으나 결과는 예상 외로 열세여서³⁵ 1959년 1월 20일 새 이사회가 모였을 때 실행 이사 14인 중 NAE측은 단 네 사람(이환수, 노진현, 양화석, 김재석) 뿐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사회에서 신학교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박형룡 박사의 구명 운동이 실패했다는 것을 느꼈다.”³⁶ 물론 이런 결과가 있기 전에 NCC 측에서도 상당한 선거 운동이 있었다. “안광국, 위두찬, 김성철, 김석진, 나기환 등은 온양에서 모여 구수 밀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선거 운동을 진두 지휘한 결과 40:17이란 차이로 승리한 것”이었다.³⁷

정규오, 박찬목, 조동진, 이환수 같은 박박사의 추종자들은 박박사가 물러나고 다른 교장이 들어서면 교단의 신학이 좌경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교장 직에 한국 장로교 보수 신학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믿은 이들은 그리하여 박교장의 일선 후퇴가 “보수 신학의 후퇴”와 “자유, 진보 세력의 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가 보수, 정통 신학을 유지하려면 박형룡 박사의 위치가 신학교에서 확고하게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³⁸ 김인

수 교수는 당시 NAE측 뿐 아니라 심지어 박형룡 박사까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태의 본질을 신학적인 것으로 왜곡하면서 교회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난한다. 그가 실수를 자인하여 교회 분열을 막는 쪽을 택하기보다 “한국 교회는 신신학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현 상태로 방치하면 한국 교회가 에큐메니칼이 될 터이니 나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신학적 호도를 통해 자기 회생을 꾀했다는 것이다.³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택을 처분해서라도 자신의 과실로 인한 교비 손실에 대한 책임의 일단을 지라는 신학교 이사회와 측근들의 제안을 완강히 거부한 박형룡의 처신을 볼 때 이러한 비판이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객관적 후대의 눈에는, 이 박형룡측 인사들이 행정 실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신학적 노선을 고수하는 것이 별개의 사안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누가 어떤 신학을 지지하든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사람은 자신의 중대한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신 그들은 어떤 이가 특정 신학의 대가이기만 하면 심각한 과오를 범하더라도 간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보수 정통 신학의 수호라는 명분에 비하면 행정적 도덕적 과오란 너무나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최소한 이들은 박형룡이 교장 직에서 물러나면 장로교회에서 보수 신학을 고수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정확한 현실 인식이었든 아니면 지나친 인물 분위 성향의 표출이었든 이들이 박형룡이라는 한 인간을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 하다.

NAE측이 보수 신학을 수호하기 위해 박형룡을 필사적으로 변호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해석이다. 혹자는 이들이 박박사 방어에 그처럼

집착했던 것이 자신들의 계파적 입지가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본다. 정규오 목사 등 NAE측 인사들이 박형룡 박사의 몰락을 자신들의 정치적 몰락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의 교장직 고수를 위해 것처럼 애를 썼다는 것이다.⁴⁰ 이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정치적 성향을 띠고 행동했었다는 것은 총신 90년사를 쓴 김요나의 진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1958년 9월 서울 영락 교회당에서 제43회 총회가 모이기 전 “이른바 NAE측 목사들이 삼각산에서 기도회로 모인다는 구실로...총회를 대비하여 사전 정치 공작을 폈다. 이들은 NCC쪽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격침시킨다는 목표로 우선 몇 사람을 택하여 집중 공격하기로 했다.” 일차로 지목된 인사가 그들이 “NCC쪽의 대표 인물”, 혹은 “NCC의 거두”로 본 한 경직 목사였다. 그들은 그가 시무하던 영락교회 단상 뒷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억지스러운 공격을 퍼부었다. 또 “해방 십년사”(아마도 김양선의 저서를 말하는 듯)에 나타난 “잘못된 수십 가지 내용”의 책임이 종교 교육부 총무로서 에큐메니칼측의 중심 인물들 중 하나인 안광국 목사에게 있다고 질타했다.⁴¹ 반대편 계파의 지도자들을 총회에서 배제하기 위해 NAE측이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이들이 다분히 당파적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을 신학 노선의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NAE 측

어느 것이 그들의 진정한 동기였든(아마도 그 두 가지--신학적 동기와 당파적 동기가 복합적이었을 것이다) 박형룡의 추종자들은 중대한 법적 도덕적 실수를 범한 기독교 지도자를 신학교 교장으로 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갔다. 그 목표를 위해 이들이 채택한 수단은 신학적 갈등

을 부각시키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성에 대한 일반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장신대의 김인수 교수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NAE 측은 부지 때입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신학 논쟁을 일으켜 에큐메니칼 측을 비방하면서 옹공이니 신신학이니 하는 말로 사건을 호도하기 시작했다”.⁴² 구체적으로, 박형룡측 인사들이 박교장을 유입시키기 위해 거론한 주제가 WCC의 신학적 문제점이었다. 이성헌의 지적이 정곡을 찌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을 말하자면 아무리 보수정통측이라 해도 박형룡 교장의 손에서 나간 삼천만원 부정 지출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또 그것을 정당화할 수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박형룡 박사의 인책을 인정하는 경우 한국에서 보수 정통이 무너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박교장의 인책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맹렬한 공격이었다.⁴³

요컨대, 박형룡의 측근들인 NAE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이용하여 역공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WCC는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는 단체이다. 거기에 가입하자고 하는 에큐메니칼측은 고로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런데 박형룡 박사가 신학 교장직에서 떠나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그 경우 교회는 자유주의 판이 된다. 그러한 불행을 막으려면 박교장을 유입시켜야 한다. 또 다른 통합측 사가도 동일한 해석을 제시한다.

처음 복음주의 협의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수 신앙 수호라는 순수한 생각에서 출발했으나 박형룡을 맹종하고 거의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박형룡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NAE와 WCC를 대립시켜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에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교회는 그 술책에 말려 들고 말았다. 박형룡 지지자들은 NAE라는 명칭을 독점하고 악용하기 시작했으며 차차 정치적 색채를 띠었고 제 43회 총회 임원들은 이들 일색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박형룡이 이 협회의 고문 자격으로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 이 단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미 교회 분열의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⁴⁴

NAE측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켜 단지 행정적 도의적 책임의 문제를 신학적 노선 문제, 심지어는 “색깔론”으로 변질시켰다는 해석은 단지 통합측 사가들만이 아니라 제3자격인 고신측 사가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사실이다. 남영환 목사는 박형룡의 추종자들이 그 무렵 에큐메니칼 측에 대한 용공, 자유주의자라는 공격을 강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⁵

후대의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설사 WCC가 용공이나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는 단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도자의 도덕적 행정적 중대 실수를 면제해 주는 사유는 될 수 없는 것 같다. 행정적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특정 외국 단체에 불가입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행정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지고 가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에는 불가입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문책과 단체 가입을 묶어서 한 사건인양 취급한 행위는 그 주체들의 정직성과 순수성, 혹은 최소한 사안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다면, 이들은 신신학이나 자유주의의 파괴성에 대한 어릴 적부터의 오리엔테이션에 의해 자신들의 좁은 신학적 노선에서 추호라도 벗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극단적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한편, WCC 가입 찬성파들은, 그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자유주의적 신학 성향의 소유자들이었는가? 혹은 한국 장로교회가 거기에 가입하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NAE 측의 비난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이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WCC의 그 전 관계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WCC와 에큐메니칼 논쟁

일찍이 1948년 암스테르담 창립 총회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김관식 목사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귀국하여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국 장로교회의 정식 WCC 가입을 제안했고 총회는 그것을 결의했다. 그 결과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린 제 2차 총회에 김현정, 명신흥, 유호준 목사가 대표로 참석했다.⁴⁶ 그 무렵 일각에서는 WCC가 옹공, 신신학, 세계 단일 교회 운동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총회 정치부 서기 김현정 목사는 WCC가 “결코 각교파의 신조 통일을 의미함이 아니요, 각자의 신조를 존중하면서 연합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 교회 사이의 친선과 상호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1956년 9월 제 41회 총회(회장 이대영)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찬반 양론 끝에 연구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연구 위원은 한경직(위원장), 전필순, 유호준, 안광국, 박형룡, 박병훈, 정규오(서기), 황은균 목사들이었

다.⁴⁷ 위원회는 이듬해 1957년 부산 중앙교회에서 열린 42회 총회(회장 전필순)에 보고하기를, 에큐메니칼 운동 지도자 중에는 “단일 교회를 목표로 하는 이”들과, 교회의 “친선과 협조를 목표로 하는 이”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과거에나 현재에도 친선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가하기로 하오며, 단일 교회를 지향하는 운동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했다. 이 때 보고자는 서기 정규오였고 박형룡 박사가 위원회의 그 결정 사항을 보충 설명했다.⁴⁸ 말하자면 박형룡 박사의 당시 WCC 가입에 대한 견해도 “무조건 참여 불가”가 아니라 선택적 참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총회는 한국 장로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친선과 사업 협조에만 참여하고 교파 합동에는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정규오는 42회 총회 이후 “에큐메니칼 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더욱 격렬해졌다”고 주장한다. 그 때문에 43회 총회(노진현 총회장)에서는 연구위원회가 합의된 보고할 내용조차 갖지 못해 아무런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⁴⁹

NAE 측 대부격인 박형룡 박사도 애초에는 57년의 42회 총회 결의와 동일한 노선을 걷고 있었다. WCC에 대해 극단적 반대가 아닌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58년에 신학지남에 쓴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리와 목적”이란 글에서 그는 “우리 교회는 세계적 교회 친선의 중요함을 생각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나 교리상 경계와 비타협의 태도를 취할 것이며, 장차 어떤 날 교파 합동의 계획이 구체화될 때는 이 운동으로부터 단연 탈퇴할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⁵⁰ 그러므로 박형룡의 본래 입장은 한국 장로교회가 WCC에 참석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포함된 국제 단체와 무조건적으로 상종하지 않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것에 접근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한다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취사선택의 태도였다는 것이다. 만일 WCC에 대한 가입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의 증거라면 박형룡 박사도 자유주의 신학자라 불렸어야 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도 당시로서는 “운동에 참여”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형룡보다는 정규오 등의 NAE측 인사들의 신학과 WCC에 대한 태도가 더 경직적 보수였던 것 같다.

김요나의 관찰에 의하면, 42회 총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CC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었던 이유는 다분히 파벌 정치적인 것이었다. 1955년 8월 한국 NAE는 WEF에 가입했다. WEF는 WCC에 대립적인 입장에서 창립된 단체였다.⁵¹ 따라서 한국 NAE도 자연 WCC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WCC에 대해 우호적인 소위 에큐메니칼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총신대 100년사에서도 지적하듯이, “NAE측이 WEF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난 후부터 적극적으로 WCC의 에큐메니칼 지지자들과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⁵² 대립적인 성향을 가진 두 집단의 반목은 총회 임원 선거에 반영되었다. NAE측과 에큐메니칼측이 총회 임원직을 차지하기 위한 “파벌”들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⁵³

만일 위의 분석이 옳은 것이라면, 결국 미국이 중심이 된 교회 기구들의 영향이 한국 장로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WCC에 우호적 감정을 가진 한국 장로교 지도자들과 WEF에 우호적인 지도자들이 미국에서의 WCC와 WEF의 갈등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시켰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다소 우스꽝스러운 대결이었다. 왜냐하

면 한국에서 WCC 가입을 주장하는 이들이 꼭 WCC의 지배적 신학 분위기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룡 박사가 지적했듯, 자유주의가 WCC의 “지도적 세력을 구성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⁵⁴ 할지라도 한국의 에큐메니칼측 인사들은 WCC의 주류를 이루는 신학 노선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신학적 신념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WCC 가입 찬성자들과 그 반대자들의 신학적 거리는 미국에서의 WCC 지도자들 및 WEF 지도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러나 이 무렵, 즉 1958년 겨울, WCC가 용공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다. 1958년 11월, 미국 NCC 주최로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세계질서연구회의(WOSC)에서 500여명의 미국 에큐메니칼 개신교 지도자들이 미국이 중공을 승인하고 UN 가입을 수락할 것, 그리고 공산 국가와의 공존을 결의하여 이를 미국 정부에 건의하고 그 선전비로 3500만불의 거액을 사용키로 했다는 소문이 들린 것이었다.⁵⁵ 중공의 가입으로 휴전된 6. 25 동란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저한 반공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던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그 소식은 WCC가 용공 단체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족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인들은 “빨갱이”라면 패닉 현상을 일으키던 시대였다. 그리하여 반공 사상으로 충만한 한국의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총회 임원 선거를 통해 에큐메니칼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⁵⁶ 그리하여 1959년 총회를 앞두고 NAE 측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 총대 수도 가장 많은 경북 노회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측의 득세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전략으로 WCC의 용공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

그것을 목적 달성을 위한 “최대의 무기”로 삼은 그들은 에큐메니칼측을 아예 “신신학, 용공주의자”로 몰아 붙였다.⁵⁷

그러나 과연 WCC 가입을 찬성하는 이들이 모두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인가? 혹은 WCC에 가입하면 한국 장로교가 자유주의화될 것이었는가? 박형룡 교장이 틀러나면 장로교회는 필연적으로 자유주의화될 것이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할 객관적 관측자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WCC 가입을 주장한다고 해서 꼭 신학적 자유주의자는 아닐 수 있었다. 만일 그렇다면 박형룡도 자유주의자라 불렸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WCC 가입에 찬성하는 이들과 NAE측을 대척점에 두는 것도 정확하거나 정직한 일이라 할 수는 없었다. 보편 교회의 친선과 교제라는 목적을 위해 국제적 기독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입 후 거기서 세계 교회를 단일화하지는 움직임이 대두되거나 자신들의 신학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도래할 때 탈퇴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WCC에 대한 박형룡 박사의 입장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따라서 박형룡 지지자들이 당시 WCC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문제의 초점을 흐린 부정직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WCC 가입에 대한 견해 차이는 사실상 장로교회의 분열 요인이 될 수 없었다.

장로교회의 WCC 가입 문제가 대단한 소요를 일으켰지만 그것이 장로교 분열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리라는 절정을 향해 가는 도중의 한 요인이었을 뿐이다. 교회 분열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양측의 교권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은 이 경우에도 진리임이 입증되었다. 통합 합동 분열의 결정

적 발단은 총회 총대권에 관한 분규였다. 예나 지금이나 장로교 총회는 교단에서 정치 꽤나 한다고 하는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임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교단의 노선, 정책, 사업, 신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질적 의미도 있지만, 그 못지 않게 총회 임원의 자리라든지, 이런저런 감투들이 결정된다는 비본질적이고 저급한 이유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또 많은 경우 목사들은 총회 총대가 되는 그 자체를 큰 명예로 여겨 그것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경기 노회 총대 문제

1959년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제 44차 총회는 여러 모로 중요성을 가진 모임이었다. 한국 선교 75주년을 맞아 국내외의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므로 상징적으로 뜻깊은 총회가 될 것은 물론 박형룡 교장 건이 중심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므로 정치적으로도 의미있는 모임이었다. 당연히 박교장을 비호하는 NAE 측과 박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에큐메니칼측은 각각 총회에 참석할 자과 총대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열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59년 5월 14일 경기 노회 정기회가 열렸다. 경기 노회는 서울과 경기도 전역을 망라하여 당회가 있는 교회만도 백 여개가 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회였다. 매년 그랬지만 그 해 총회는 박교장 거취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경기 노회 총대 선출이 더욱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리하여 박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에큐메니칼 측과 박교장을 비호하는 NAE측은 자과 총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

리고 있었다.58) 총대 투표 결과는 “전 노회원의 7할”을 차지하던 에큐메니칼측을 누른 NAE 측의 압승이었다.59) 총대 28명 중 NAE측이 18명, 에큐메니칼 측이 10명 당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당연히 총대에 선출되리라 믿고 있던 목사가 있었으니 그는 총회 전도부 총무인 황금천 목사였다. 그가 자신의 탈락을 심히 의아해 하다가 노회가 끝난 후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임원회는 투표지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는 80표를 얻은 황목사가 느꼈던 당선되었어야 했다. “개표 위원들의 실수로” 그의 이름이 누락되었던 것이다.60) 급기야 임원들에 의해 투표지가 모두 재개표되었는데 “당선자들의 득표 수와 순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61) 혹자에 의하면, “한 두사람의 당락 번복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총대 54인 중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득점 표수의 전도를 가져왔다.”62) “당선되어야 할 자가 낙선되고 낙선되어야 할 자가 당선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63

노회원들이라고 해야 일이백 명 밖에 안 되는 수인데 것처럼 개표에 오류가 많았다는 것은 거기에 고의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개표 위원들이나 투표에 관련된 자들 중에 부정을 저지른 자가 있었을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그리고 과열된 당시 형편을 생각할 때 부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실제로 그러한 의혹이 당시에 무성했다.64

후대에 한국 교회사를 검토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유감으로 비친다.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고 그것이 개인인지 여러 사람인지도 알 수 없으나, 단지 파당적 열심에 의해 자과의 당선을 위해 비윤리적이고 부정직한 수단까지 선거에 동원한 한국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후 결과를 생각하면 그러한 부도덕성과 낮은 자질을 가진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은 더욱 커진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 윤리를 짓밟으면서 불신자들도 지탄해 마지 않는 부정 선거를 저지른다는 것은 심히 사악하고 저급한 과오임에 분명하다.

물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혹 개표 상의 본의 아닌 실수일 수도 있다. 실제 허순길 박사는 노회 폐회 후 개표 위원들의 실수로 황목사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적고 있다. 어쨌든 선거에서의 중대한 착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노회장 이환수 목사와 서기 서재신 목사가 사임했다.⁶⁵ 부노회장 강신명 목사는 6월 임시 노회 소집을 공고했다. 정기 노회가 선출한 총대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었다⁶⁶.

그리하여 6월 29일 승동교회에서 총대 재선거를 위해 제72회 경기 노회 임시 노회가 모였다. 그러나 NAE측은 임시 노회 자체를 부정하고 대부분 불참해 버렸다.⁶⁷ 이것도 유감스러운 처신이였다. 그것은 정기노회에서의 총대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인데 그렇다면 진작 그것을 입증하고 임시 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거나 봉쇄했어야 했다. 그러자면 황금천 목사의 당선 누락 건이나 재개표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NAE측은 이러한 시도를 전혀 거부한 채 무조건 임시 노회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에큐메니칼과 일색이 된 모임에서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는 당연히 정기노회의 그것과 정반대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28인

중 26인이 에큐메니칼 측의 인사들로 선출되었다. 반면 NAE측에서는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 만 총대로 당선되었다. 통합측 역사서는 “이 모든 일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⁶⁸ 형식상으로는 그러할지 모른다. 하지만 반대편 계파 대표들이 거의 불참한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을 상황에서 임시 노회를 강행하고 총대 선거에 들어간 측도 무리를 행했던 것 같다. 일방적으로 치우친 참석자들만으로 임시 노회를 강행하고 거기서 선거를 했을 때 반대편에서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러한 수순을 뻔히 내다 보면서 선거를 강행하는 것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개회 성수가 되었는데도 노회를 열지 않을 법적 명분이 없는 것도 난점이기는 했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든 경기 노회 대표들, 그리고 당시 대한 예장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가진 존경스러운 인물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파당주의적이고 대결적인 자세가 당시 장로교 지도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총회의 파행

그리하여 결국 양측이 모두 제각기 다른 총대 명단을 총회 서기에게 접수시켰다. 전 경기노회장 이환수 목사는 정기 노회의 총대 명단을 제출했다. 이것도 석연치 않은 행동이었다. 자신은 정기노회 총대 선거에서의 잡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회장직에서 사퇴했었다. 즉 그 선거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었다. 그런데 왜 정기 노회 총대 명단을 총회 서기에게 제출했는가? 에큐메니칼 측은, 부정 선거가 있었던 하자있는 총대 명단

을 NAE측 인사인 이환수 목사가 굳이 총회 서기부에 제출했던 데에는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총회에 가면 NAE측 인사들이 많을 것이므로 어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명부가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고 보았다는 것이다.⁶⁹ 부노회장 강신명 목사도 임시노회의 총대 명단을 총회 서기부에 제출했다. 8-9년전 총회가 고려파를 총회에서 제거하기 전에 일어났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된 것이었다. 한 노회에서 두 개의 총대 명단이 올라왔다. 어느 쪽을 합법적 명단으로 인정할 것인가? 대전에서 열린 제44 회 총회에는 양편을 지지하는 총대들의 수가 비등했다.

한국 교회 분열은 총대 명단이 복수로 올라오는 바람에 일어난 경우가 여러 번 있다. 총대라는 것이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다. 누가 총대가 되던 교단과 하나님 나라의 최대 유익을 위해 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총대권이라는 교권 때문에 한국 교회 분열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회개 제목들 중 하나요, 한국 교회의 수준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드디어 1959년 9월 24일, 제 44회 총회가 대전중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당연히 벽두부터 경기노회 회원 문제로 파행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도 1950년 4월 대구서문 교회당에서 경남노회 회원권 문제로 총회가 벽두부터 파행을 거듭한 사건의 재판이었다.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 때의 양상을 문자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한국 교회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치훈련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 준다. 어쨌거나 두 경기 노회 총대 명단 중 어느 한쪽의 총대 명부를 받지 않으면 총회 개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실제 총회 첫날은 개회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총회가 해산되었

다. 이튿날 속개된 총회는 두 명부 중 어느 쪽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양측 대표 세 사람씩으로부터 당시의 상황 설명을 청취했다. 그 후 총회는 그 문제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표결 결과는 정기 노회 명부지지 119표, 임시 노회 명부지지 124표, 기권 5표로 에큐메니칼 측의 승리였다. 임시 노회에서 결정된 명부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총회장은 임시 노회측 총대가 선정되었음을 선포하고 총대 명부에 그 명단을 기재하도록 했다.⁷⁰ 여기까지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던 셈이다.

NAE측은 물론 애석했다. 불과 다섯 표 차이로 자파가 거의 두 배나 많은 정기 노회 명부가 거부당하고 자파는 단 두 사람 뿐이요 나머지 20여 명이 모두 반대파인 명부가 채택되었으니 이제 총회의 모든 안건에서 양측이 사사건건 대립될 때마다 패배는 불을 들여다 보듯 뻔했다. 안광국이 지적한 것처럼, 일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NAE 측은 신학교 이사회에서뿐 아니라 총회에서도 주도권을 에큐메니칼측에 빼앗긴 셈이 되어 버렸다.⁷¹ 그러나 표결은 총회의 합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패자는 누구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 NAE측이 비신사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약오른 패배자”(sore loser)의 전형적 모습을 노출했던 것이다.

다음 날 총회가 속개되었을 때 전 경기노회장 이환수 목사가 이미 전 날 일단락 된 경기 노회 총대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어제 일단락된 사안을 납득할만한 명분도 없이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NAE측 장로들인 박희몽, 김자경이 나와 에큐메니칼은 옹공, 신신학, 단일 교회 운동이라고 고향을 쳤다.⁷² 이것은 논점을 벗어난 발언이요 회의

장을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는 행동이었다. 이 때야말로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었다. 총회장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회원들을 제지하고 회무를 진행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NAE 측 인사였던 총회장 노진현 목사는 그 혼란 속에서 이미 끝나 버린 논의의 결정을 반복하려는 속셈을 가졌던 것 같다. 그는 무질서한 언동을 하는 회원들을 제재하고 회무를 진행하는 대신 그들의 무질서에 동조하는 제안을 했다. 경기 노회 총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부와 전 총회장들 연석회의를 열어 타개책을 강구하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⁷³ 이것은 재론 동의와 그것의 채택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따라서 불법적 절차에 의한 제안이었다.

김요나는 여기서, “회의장이 너무 시끄러워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총회장이 증경 총회장과 정치부원들 연석 회의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회의장을 정숙하고 질서있게 만들 책임과 권리를 가진 이가 바로 사회자이므로 총회장은 마땅히 직권을 발동하여 장내 질서를 정리하고 회의를 계속했어야 했다. 게다가 총회원들은 사회자의 그러한 잘못된 회의 인도에 대해 의사 진행 발언 요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회의가 회의법을 따라 진행되도록 요구했어야 했다. 특히 에큐메니칼측 회원들은 불법적 회의 진행을 저지하고 그것이 회의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그 순간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전총회장들의 모임의 결론은 “현 총회의 정세 하에서는 회무를 원만히 진행하기가 곤란하므로” 동년 11월 24일까지 총회를 정회하고 그 때까지 경기 노회가 스스로 총대를 다시 결정해 오라는 것이었다.⁷⁴ 사실 그

결정이 꼭 필요했다면 총회 개회 전, 그리고 두 개의 경기 노회 총대 명단들 중 하나의 선택을 위한 표결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이미 총회의 표결로 그 문제가 결정된 후 다시 총대 명단 문제 해결책을 도출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무질서였다. 그 간단한 문제, 즉 노회에서의 총대 결정을 위해 노회를 세 번, 총회를 한번 열어야 했다는 것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원칙도 규범도 없는 무정부 수준의 회의라는 것을 폭로한 일이었다.

어쨌든 전 총회장들의 제안은 총회 표결에 붙여졌다. 그러나, 이성헌의 기술이 정확한 것이라면, 여기서 다시 총회장이 사회자의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자파의 입장을 관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 까지 총회를 정회하자는 안에 대한 가부를 물었을 때 100명의 NAE측 “예”보다 에큐메니칼측의 “아니오” 소리가 분명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가결을 선포했다.⁷⁵ 왜 사회자는 그러한 경우 마땅히 했어야 할 투표를 통한 계수를 하지 않았는가? 또 왜 에큐메니칼 측 회원들은 표결과 계수를 주장하지 않고 그러한 불법적 가결을 묵인했는가? 이 점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성헌의 진술에도 의문은 없지 않다. 그러나 만일 이성헌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총회장은 아주 불의한 횡포를 저지른 셈일 것이다.

아무튼 형식적으로, 그리고 외견상으로는, 회의법에 어둡고 법치주의 보다는 온정주의적 문화에 익숙한 총회원들은 증경 총회장들과 정치부의 제안을 채택했다. 아마도 많은 총대들은 패자 측에 의해 회의장에 극렬한 반대와 혼란과 대립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비록 어제 합법적으로 결의된 사항이지만 불만 집단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백지화하고 법절차를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는 과거의 한국적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온정주의에 흘러 무질서하고 원칙이 없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불과 하루 전에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의한 공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론 절차도 없이 재심의하여 새로운 결의를 추출해 내는 이러한 무질서한 회의 진행은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 가끔 발견되는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 장면들이다. 루울을 존중하는 페어 플레이 정신이 부재하고 떼쓰는 사람들을 진압하지 못하고 그들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굴복하여 당장의 화평을 구하는 낙후된 문화인 것이다.

총회장의 계속적인 “불법적 사회에” 에큐메니칼측은 흥분했다. 그 결과 그들도 이제 비이성적이고 무질서한 대응을 시작했다. 총회의 정회가 선포된 뒤 “회원들이 퇴장하고 있는 찰라 별안간 안광국 목사⁷⁶가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 미리 준비한 ‘임원 불신임안’을 낭독”했다.⁷⁷ 그것은 회의를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장과 주로 NAE측으로 이루어진 임원들에 대한 전면 부정의 행동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자신이 사회자나 된 듯이 ‘가하면 예하시오’라고 요청했다.⁷⁸ 사회자의 불법을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자신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미 이성적인 분위기가 사라진 회의장의 에큐메니칼측 회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립 가결했다.” 교회 최고 지도자들의 성총회장이 군중들의 운동 경기장 같은 분위기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신이 난 안광국은 “예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우스꽝스럽게 선언하고 급히 하단했다. 회의장은 야유와 찬성 가운데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파국으로 치달았다.⁷⁹ 그 때 중앙교회 교인들이 회의장에 난입

하여 의자를 뒤엎었고 사찰은 고무신으로 총대들을 난타했다.⁸⁰ 다시 한번 한국 교회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면을 거룩한 총회장에서 연출하고 있었다. 양측 모두 파벌주의에 의해 이성을 잃고 있었다. 경기 노회 총대 문제를 두고 4, 5일 동안 온갖 추태만 부리던 제44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이렇게 깨어지고 말았다.

비에큐메니칼적인 에큐메니칼측

객관적으로 볼 때, 에큐메니칼 측은 분개할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 속에서 이들도 중대한, 어쩌면 에큐메니칼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교회 일치를 중시하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게 그들은 단지 총대 수자라는 자파의 이익과 명분에 사로잡혀, 그리고 NAE측의 절차상의 비신사성에 흥분하여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명분인 교회 일치를 깨뜨리는 자총수를 먼저 범한다. 그들은 교회 분리를 각오했다. 그 날 밤으로 안광국, 한경직, 전필순, 유호준 목사 등 에큐메니칼 측 인사들은 미선교부에서 대절해 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 연동교회에서 전필순 목사의 사회 하에 자기들끼리 제44회 총회의 속회를 열었다. 그리고는 총회장에 이창규 목사 등 임원을 선출했으며⁸¹ 공석인 교장직에 계일승 박사를 서리로 임명했다.⁸² 비극적 교회 분리가 현실화되었고 그것은 그 때까지 절차상의 문제들에서는 정당성이 훨씬 많았던 측의 격분에 의해 발생한 분리였다.

결정적 교회 분리에 있어 선수를 친 책임이 있는 자파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통합측 사가들은 전 총회장들이 총회를 정회하고 11월에 속회하기로 결정한 그 시점에서 이미 “총회가 두 쪽으로 나뉜 것

이나 마찬가지로였다”고 주장한다.⁸³ 그러나 그것은 속단으로 보인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표방하는 중요한 가치인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NAE 측의 미성숙한 역지가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미스럽기는 하나 그것조차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고 조금 더 참았더라면 것처럼 성급하게 그날 밤 당장 서울로 올라가 자신들만의 총회를 오픈으로써 한국 장로교회를 결정적으로 두 쪽으로 나누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의 연동측 지지 논리의 약점들

연동 총회 직후인 10월 7일의 성명서에서 제한 미연합 장로교 선교회는 연동측 총회가 회의 규정을 따른 정상적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1. NAE 측 총회원들이 불법적으로 총회의 정회를 시도했다. 2. 그래서 전 서기(안광국)가 일어나서 임원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3. 그 안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4. 그리고 직전 회장을 통해 회의를 속행하려 했다. 5. 그러나 회의장에서 강제 축출당했다. 6. 부득이 장소를 서울로 옮겼다. 7. 거기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속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객관적인 관측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무수한 난점이 있다. 첫째, 불법적 정회 결정을 에큐메니칼측은 왜 회의장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저지하지 않았는가? 둘째, 비록 정회 결정 과정에, 총회가 바로 전날 자신들이 투표로 한 결정-경기 노회 총대 명단을 정기 노회의 것이 아니라 임시 노회의 것으로 채택한 것-을 재론 등의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반복하는 등, 대단히 무질서하며 후진적이며 저급한 행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정회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총대들 다수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가? 폭력이나 강압에 의해 그러한 결정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만일 정회의 결정 과정에 총회장의 불법적 사회 등 잘못된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저지를 시켰어야 하지 않을까? 만일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사후에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 독자적 총회를 구성하여 그 무질서하고 불명예스러운 집단을 교회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한 것이 과연 합당한 선택이었는가?

세째, 임원 불신임안이라는 중대하고 과격한 안건을 제기하고 통과하는 과정이 너무나 돌발적이고 엉뚱하며 무질서했다. 제안의 중대성에 걸맞는 충분하고도 차분한 사유 설명을 위한 시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총회가 그 안건을 채택하는 절차도 없었고 표결 전 토의 과정도 없었다.⁸⁴ 그러므로 이것은 불법적인 폭거라는 인상을 준다. 넷째, 그 안에 대해 에큐메니칼측이 환호를 울리며 화답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회원 과반부 찬성을 얻는 계수 과정이 없었다. 다섯째, 총회장이 불신임당해서 사회를 볼 수 없으면 부회장이 사회를 대신해야지 왜 직전 회장이 나왔는가? 여기서, 사전에 그들 측에 각본이 짜여져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여섯째, 서울에서 속회를 하기 전 모든 총대들에게 장소 변경과 속회 시간에 대한 광고가 있었는가?

혹 이러한 여러 의문들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연동측 총회가 정통성을 인정받고 그것이 교회 분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한마디로 미연합 장로교 선교회측의 논리에도 억지와 무리가 많다. 그러므로 그 날 밤으로 서울로 가서 연동측 총회를 연 것은 성급하고 경솔한 처

사였다. 결과적으로 연동측이 장로교 분열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승동측보다 훨씬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교회 분열을 결정적으로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제 NAE측은 교회 분열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자라는 부담을 벗은 채 자기들의 총회를 11월에 승동 교회에서 개최했고 그 장소 이름을 따 “승동측”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들은 WCC를 영구 탈퇴하기로 가결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기로 했다. 또 총회의 혼란 방지를 위해 교직자들은 NAE도 탈퇴하기로 했다.⁸⁵

장로교 분열에 대한 선교사들의 책임

한편, 원칙도 없고 투율을 무시하는 무정부 상태의 회의 진행 방식이 법치주의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연합 장로교는 WCC에 가입해 있던 적극적 회원 교회였으므로 심정적으로 에큐메니칼측에 동정적이었겠지만 NAE측의 비신사적인 억지 행태에 의해 그들은 더욱 분개했다. 그러한 분노가 10월 7일의 성명서에서 표현되었다. 그들은 대전 총회가 “진행 중 허다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중 “가장 현저한 것은 총회를 1959년 11월 24일까지 정회시킨 일”이라고 성명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는 연동교회에서 9월에 모인 통합측 총회를 “유일한 합법적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4회 총회”로 인정했다. 그리고 11월에 승동 교회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는 NAE측 총회의 정통성을 부인했다.⁸⁶

비교적 보수적인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10

월 2일 그들이 제44 회 총회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는 에큐메니칼측을 지지하고 있다. 성명서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경기 노회의 임시 노회 총대원들이 합법적 총대”라는 것과 “무질서를 빙자하여” 1959년 11월 24일 까지 총회를 정회한 것은 “불법적”이라는 점을 선언했다.⁸⁷

비로 이 점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장로교 분열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그들이 NAE측의 비신사적이고 불의하고 무질서한 회의 진행에 대해 분개하고 그 불법성을 지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요 또 정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에큐메니칼측이 자기들만의 총회를 연 것을 정당화하고 그 회의 정통성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부정확한 판단의 결과였을 뿐 아니라 경솔하고 성급한 반응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선언으로 인해 결국 NAE측과 에큐메니칼측의 분리는 더 공고화 되었기 때문이다.

대전 총회에서 NAE 측의 불법과 부조리가 도를 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한 장로 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회관에 근거한 것이었는가? 연동교회에서의 모임을 유일한 정통 장로교 총회로 인정하면 나머지 NAE 측은 틀림없이 자기들만의 총회를 열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에 장로교회가 또 하나 생기게 될 것은 불을 들여다 보듯 뻔히 내다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그러한 결과를 선택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과연 NAE 측의 불법적인 회의 진행이 교회 분리를 시도해야 할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심히 무질서하고 비신사적이며 여러 경우에 있어 무법한 것이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교회를 나누어야 할만큼 중대한 문제였는가 하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 분리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사유로 기독교의 존립에 관계되는 근본 교리가 부정될 때로 한정했다. 제44회 총회 시에 그러한 사유가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심히 무질서하고 비신사적이며 비열하다는 것이 교회 분리의 사유가 되는가?

교회 분열을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신학적 차이가 있었는가?

승동측과 연동측의 분열에 신학적 요인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영현은 그 분열이 “신학적으로 에큐메니칼 노선과 NAE노선의 대립 충돌”이었다고 평가한다.⁸⁸ NAE측을 대표하는 인물이 박형용 박사였고 에큐메니칼 측의 대표자가 한경직 목사였다는 점은 전자측이 후자측의 신학을 의심하고 불만스러워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물론 후자도 전자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 전자 측이 보기에 한경직 목사는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은 의심스러운 신학을 가진 자였을 수 있다. 후자가 보기에 전자는 너무 보수적이고 경직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소위 에큐메니칼측과 NAE측 사이의 신학적 차이가 실제로 양자가 한 교회 안에 공존할 수 없을만큼 크고 심각한 것이었는가? WCC에 참석하는 것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신학적 신념과 무관했을 수 있다. 극히 정통적인 신앙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세계 교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소 진보적인 국제 기독교 단체에 참석해 보자는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교회 협의회의에의 참가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는 양자 어느 쪽도 상대의 신학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물론 한쪽은 다른

쪽이 자기만큼 보수적이지 않음에 대해, 그리고 다른 쪽은 한 쪽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내심 불만스러워하고 있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양자가 한 배에 탈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 할만큼 상대측의 신학을 문제시한 적은 없었다. 그것은 양자 모두 역사적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공통된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동측은 분열의 참된 요인이 신학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NAE측이 보수 신학의 파수를 구실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 사실은 박형룡 한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NAE 측의 문제였다고 그들은 지적한다. 그 증거로 기독교보는 당시 승동측 인사들의 발언을 제시한다. 총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에큐메니칼 대 NAE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박교장의 삼천만환 부정 지출을 은폐하기 위해 이런 명목을 걸고 나온 것 뿐이다. 노진현, 이환수, 김윤찬, 정규오 씨 등의 입에서도 박교장에게 명예 교장을 주고 조직신학을 교수하게 하고 박교장이 원하는 이를 교장으로 하면 에큐메니칼이니 NAE니 하는 문제는 없어진다고 하였다.”⁸⁹ 당시 기독교보도 인간에 대한 우상화가 장로교 분열의 첫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첫째는 인간을 우상화함이 그 원인이다. 한신이 갈라질 때는 김재준씨가 우상화되었고 고신이 갈라질 때는 한상동씨가 우상화되었다. 그와 같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박형룡씨가 우상화되었다.”⁹⁰

그러면 이러한 연동측의 분석은 공정한 것인가? 과연 NAE 측은 단지 박형룡을 우상화하기 위해 것처럼 완강하게 연동측과 대립했으며 결국에는 교회 분열을 불사했는가? 최소한 그들이 박형룡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그가 없으면

정통이 깨어지고 보수가 무너진다”고 실제로 믿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
는 것이다. 박형룡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국에서 그가, 혹
은 그만이 가장 잘 변증하고 있는 보수 정통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이 것처럼 박형룡을 절대
신임하고 존경한 것은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기보다는 신학적으로 그의
노선과 가르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노선이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선교 초기부터 평양 신학교를 거쳐 70년 이
상을 고수해 온 신학 노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NAE측 인사들은
그 노선을 사랑하고 그것만을 지선지고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것처럼
박형룡을 지키려 안간 힘을 썼을 수 있다. 그러므로 NAE측이 박형룡을
“우상화”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묘사인 것이라 할 수 있다. NAE측 인
사들은 박형룡을 “우상화”한 것이 아니라 박형룡의 전통적이고 좁고 근
본주의적인 신학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었다. 그의 신학에 대한 그들의 절
대적 신뢰가 그들로 하여금 그를 것처럼 끝까지 붙들게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거나 폭을 넓히면 한국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절박감과 위기감 때문에 그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박형룡
을 지키려 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우상화했다기보다는 그에
게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다.

NAE측이 박형룡을 “우상화”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더 적실성있
는 질문이 있다. 그것은, 후일 ICCC 노선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오직 그
단체만을 건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심지어 세계 복음주의 연맹(WEF)이나
신복음주의 운동마저도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정죄한 박형룡의 신학 노
선이 그 추종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적이고 건강한 것이었는가 하

는 것이다.

신학적 차이보다는 정치적 대결

어쨌든 처음에는 신학적 신념에 대한 충성에서 시작한 움직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대결을 위한 대결로 발전했던 것 같다. 양측이 교회 내의 정치 계파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총대 확보나 총회 임원직에 대해 것처럼 민감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양자 모두 단지 신학적 노선에 대한 충성만이 아니라 교권에 대한 관심이 혼합된 동기에서 행동했다고 볼 근거가 된다. 복음주의 동지회 51인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정통 신학의 보수를 위해 모였지만 후일에는 정치색을 띠게 되고 교권 장악이라는 비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파당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영헌은 전적으로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NAE 측 인사들은 “본래 복음주의 보수 정통을 수호하는 인사들끼리의 회합임을 표방” 했으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신앙 운동...에 머무지 아니하고 정치적 세력이기를 노력”하여 제43회 총회는 이들의 “책동과 수단”에 의하여 총회 임원진이 이들 일파 일색으로 구성되었다.

이영헌은 장로교 분열의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교권 장악을 위한 이들의 정치적 행동에 돌린다. “제44회 총회가 비극적인 분열로 끝나게 된 것도 이들이 총회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종횡무진 투쟁”한 까닭이다.⁹¹ 물론 이영헌의 이러한 평가는 지나치거나 일방적일 수 있다. 경기 노회 총대 사건이나 44회 총회를 보면 에큐메니칼측도 교권 장악을 위한 열심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음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보를 보면 교권주의자들이 NAE 측에 더 많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

은 교권주의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 거짓 선전을 감행하여 교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 장로교 분열의 두 번째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교권주의자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에 빠진다....그것이 가장 심한 곳이 대구다...지교회를 담임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노회나 총회에 와서 규칙을 찾고 떠들고 싸우는 이들이 많다....혹은 과수원, 혹은 고아원, 혹은 양로원, 혹은 무임으로 있는 이들이 교권을 잡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 많다.”⁹²

III. 교회의 일치와 분열에 대한 칼빈의 견해

교회의 표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청취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집행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⁹³ 말씀과 성례의 사역이 “건전하고 부패되지 않은”(whole and uncorrupted) 한 “어떤 도덕적 과오들”(no moral faults)이나 “문제들”(diseases)도 교회가 교회이기를 중지하게 하지는 않았다(*Institutes*, IV, ii, 1).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를 “순수히” 집행하는 것은 칼빈에 의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단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충분한 보장이요 보증”이었다(*Institutes*, IV, ii, 12). 설교와 성례가 참 교회의 표지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것을 행하게 될 때 틀림없이 “열매”가 맺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번성”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Institutes*, IV, i, 10).

교회의 하나됨 (unity)에 대한 칼빈의 강조

설교와 성례에 의해 보편교회는 통일성(unity)을 보존하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와 성례가 있는 교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칼빈은 강조한다. “아무도 교회의 권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하물며 교회를 버리고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라!” 칼빈은 “주님이 교회의 권위를 너무나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침해당하면 마치 자기 자신의 권위가 침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보았다(*Institutes*, IV, i,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적 영혼들은 항상 그 하나됨을 분쇄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칼빈은 비난한다.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려는 행위를 칼빈은 “마귀적”이라 신랄히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Institutes*, IV, i, 9). 그리하여 칼빈은 교회에서 함부로 분리하는 것을 “배교”라고까지 비난한다. “주님은 자기 교회의 교통(communion)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거만하게 떠나는 것을 기독교에 대한 배신이요 배교로 여기신다”(*Institutes*, IV, i, 10).

교회의 하나됨을 이처럼 역설한 칼빈은 분리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정도로 교회의 일치를 강조했다. 모든 피택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장차 기업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참 교회는 복수가 될 수 없다고 그는 믿었다.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 교회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Institutes*, IV, i, 2).

그러나 칼빈이 무조건적 연합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연합에는 조건

이 있었다. 그것은 동일한 신앙고백이었다. 즉 “믿음의 일치”가 교회의 일치를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칼빈은 생각했다. “지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의지도...상호간의 호의로 결합된다”는 것이었다(*Institutes*, IV, i, 5).

교회의 분열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경우로 칼빈이 인정한 것은 교리적 차이가 있을 때였다. 즉 신앙고백이 다르면 교제(communion)가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러나 심지어 교리상의 차이조차도 그것이 항상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교리가 다 동일한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신앙의 보루”(citadel of religion)라 부를 수 있는 교리들이 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등의 교리가 그러한 것들이었다. 이런 핵심 교리들이 “목구멍이 꿰뚫리고 심장에 치명적 상처를 입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틀림없이 죽는다.” 이런 것들은 “필수적 교리의 요약”(the sum of necessary doctrine)이요 본질적인 것들이므로 모두가 이의 없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중심되는 교리”(chief doctrine)가 아닌 사소한 오류들은 용서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인간의 영혼이 죽은 후 바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일단 다른 장소에 가느냐 하는 등의 사후 상태에 관한 견해 차이 같은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엽적인 교리 문제 때문에 교회를 갈라 나가서는 안 된다. 인간은 모두가 조금씩은 다 “무지”로 인해 “마음에 구름이 끼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뼈대에는 무관하고 또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Institutes*, IV, i,

12: IV, ii, 1).

주께서는 교회의 교통을 심히 중시하시기 때문에 신자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은 배반자요 배교자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칼빈은 못박는다. 즉 교회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의견 충돌 때문에 경솔하게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칼빈은 가르친다.

IV. 결론

통합과 합동 양자는 모두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계승한다고 자처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다. 그러나 칼빈의 교회론에 비추어 볼 때 양 교단의 분열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교회의 분리 이유로 칼빈이 인정하는 유일한 경우는 중대한 교리상의 차이가 있을 때 뿐이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부정될 때는 그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회와의 교제에서 이탈했다. 그러나 통합 합동 양 교단의 분열에 무슨 “기독교의 사화에 관련된 교리적 차이”가 존재한 적이 있는가? 현재 합동측과 통합측의 헌법을 보면 양자의 공식적 신앙 고백에는 근본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 양자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신들의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다. 통합측 헌법에 첫 부분에 있는 12 신조는 더할 수 없이 보수적이고 정통적이며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다. 그와 거의 같은 12 신조가 합동측

헌법에도 나와 있다. 양 교회 모두 일선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은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앙 색채를 띠고 있다. 두 교단의 목회자들과 그들의 설교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은 모두 상당히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설혹 양자 사이에 약간의 신학적 차이가 실제로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를 갈라 놓아야 할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차이인가 하는 것이다. 두 교단의 신학이 조금 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근본적 신앙 고백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만일 교회가 약간의 신학적 신념의 차이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갈라져야 한다면 한국 장로 교회에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교단들이 있어야 할지 모른다. 한 교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도 약간의 신학적 뉘앙스 차이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사소한 차이를 과장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공통점에 주목하고 그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 교단의 분열 요인으로 지적하는 세 가지, 즉 삼천만환 사기 사건, 경기 노회 총대 사건, WCC가입 문제는 교회의 분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행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신학 문제를 거론한 당시 NAE 측은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중대 과실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신학은 신학대로 변증하는 길을 택했어야 했다. NAE측은 분명한 도덕적 행정적 과오를 범한 박형용 교장을 교장 직에 유입시키려는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윤리적 표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외국 교회 연합 기관에 멤버로 가느냐 마느냐는 교회 분열을 일으킬 이슈가 되지 못한다. WCC가 세계 단일 교회를 지

향한다는 걱정을 가졌던 50년대의 장로교 보수측 지도자들은 반 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그들의 염려가 기우였음이 증명되었으니 적어도 그러한 오관을 시인해야 한다. 세계 교회협의회가 용공이나 아니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산주의가 사실상 지구상에서 실패한 실험으로 입증되고 박멸되어 가는 지금 용공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수 십년 우방이던 대만을 버리고 중공을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하고 국교를 수립한 지금은 중공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해서 용공이라거나 공산주의에 공감한다고 말하는 단순한 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자기 신앙을 지키면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단체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자기 교회를 분열시킬 사유는 되지 못한다. 만일 그 단체에 가입한 후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거기에 가입하지 않기로 다수결로 결의하면 된다. 그런 간단한 문제로 자기 교회를 찢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NAE 측이 WCC 가입 문제를 지나치게 이슈화한 것은 순수하지 못한 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노회 총대 사건에서도 주된 과오는 NAE 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경기노회 총대 선거에서 부정을 범했고 폐어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선거에 오류나 부정이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재선거를 하는 것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재선거를 위한 임시 노회 자리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부정 선거를 먼저 시도한 것이 그들임에도 그들은 사후에 임시 노회의 합법적 절차와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 하는 시시비비를 떠나 보다 원천적으로, 누가 총대가 되는가 하는 것이 교회를 분열시킬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총대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소한 지엽말단의 문제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대를 선출하면 된다. 그리고 혹 그 선거 과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선거 등의 합의된 방법을 통해 시정하면 된다. 만일 어느 단체가 이처럼 간단한 일조차 순조롭게 행해 낼 능력이 없다면 그 단체는 자치 능력이 결여된 단체로 간주될 것이고 해산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총회에 가서도 NAE 측은 신사적이고 정정당당하게 회의에 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방식, 즉 투표로 경기노회 총대 명단을 결정한 결과에 비신사적으로 불복했을 뿐 아니라 회의를 회의법을 따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총회장은 사회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회의를 부당한 방식으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억지로 정회를 이끌어 낸 혐의가 크다.

NAE 측의 이처럼 거듭되는 비신사적인 행위들에 대해 에큐메니칼 측이 분개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연합을 중시한다는 자신들의 표방에 정면으로 충돌할 뿐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관에도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교회의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어야 할 시점에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처신하여 자신들만의 총회를 연동 교회에서 정회 당일 밤 개최했던 것은 장로교회 분열의 결정적이고도 가장 직접적인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NAE측의 그 앞의 모든 과오를 다 합친 것에 맞먹는 혹은 그보다 더 중대한 과실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통합과 합동은 분열 과정에서 모두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나, 장로교 분열 과정에서 합동측은 처음부터 20점 짜리 과오를 계속 5개 범했다면 통합측은 비교적 상식적 루트를 따라 잘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100점짜리 과오를 하나 범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열의 책임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판정하기는 심히 어렵다. 둘 다 막상막하였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한편, 앞서도 암시되었지만 장로교 분열에 미국 교회라는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WCC, NAE, ICCC 등이 모두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인데 합동 통합의 분열 과정에 이러한 명칭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보여 준다. 대체로 통합측은 아직도 프린스턴 신학교와 가깝고 합동측은 웨스트민스터와 가깝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가 꼭 미국 장로교 분열을 그대로 답습해야 하는가? 미국 장로교회가 PCUSA, OPC, PCA로 나누어진다고 해서 한국 장로교회도 나누어져야 하는가? 통합측 교회들과 합동측 교회들 사이에 것처럼 큰 신앙적, 혹은 고백적 차이가 큰가? 장신과 총신의 신학 노선이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의 차이처럼 큰가? 한 울타리 안에 머무르면서 공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상호 발전을 꾀할 여지는 전무한가? 21세기에도 한국 장로교회들이 미국 장로교회들의 위성 교회로 머물러야 하는가?

합동측에 묻고 싶다. 200교회, 이만 교인도 안 되는 미정통 장로교회가 것처럼 존경스러운가? 통합측에 묻는다. 동성 연애자를 안수하는 PCUSA가 한국 장로교의 존경스러운 모델이 될 수 있는가?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스펙트럼과 무관하게 독자적 신앙 고백과 신학 노선을 창출하고 그 안에서 하나될 수 없는가? 현실 교회들, 즉 일선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볼 때 합동과 통합 사이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듯하다.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이제 부끄러운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가 되었다. 선배들이 교권적 이유, 정치적 이유, 인간적 이유, 부패한 인간 본성의 발로에 의해 찢어 놓은 하나님의 교회를 싸매고 치유하는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시도를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특히 정당한 명분 없이 인정할만한 사유없이 분열된 교단들은 조속히 하나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신학자들, 특히 교회사를 담당한 역사신학자들이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사적 과오를 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역사 연구의 목적은 과거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한계 내에서 일했고 주의 좋은 일군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 후대를 사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한 인물들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그 때로부터 반 세기 가량의 긴 세월이 흐르고 사회와 신학이 발전된 지금의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볼 수 없었던 선배들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제 그 실수와 과오들을 극복하자는 것 뿐이다. 설령 우리가 그들보다 여러 모로 열등하고 부족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후대를 살고 있고 갈등에 직접 연루된 측이 아니라는 잇점으로 인해 우리는 사태를 좀 더 냉정하고 사심없이 평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신앙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이 금기시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죄와 폄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시정을 위한 것이다. 역사는 그들만이 아닌 우리의 역사요 그들의 실수를 후손들인 우리가 시정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현재를 창조하고 발전적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¹ 몇 해 전 온 나라가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 문제로 떠들썩했을 때 빗발치듯하는 여론의 비난에 몰린 김영삼 대통령이 그 동안의 완강한 입장에 변화를 보이면서 각계 원로들을 불러 여론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순서로 대통령이 청와대로 부른 사람이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한국에는 천 만 명에 가까운 개신교도들이 있고 수만 명의 목사들이 있는 반면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기껏 이삼 백만이 채 되지 않으며 그 교직자들은 기껏해야 수천명, 혹은 어쩌면 수백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순간에 제일 먼저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천만 개신교도들을 대표하는 개신교 목사가 아니라 천주교의 추기경이었는가?

²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김인수,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서울: 장로교신학대학, 2002);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 콘콜디아사, 1978); 김성준, 『한국기독교사』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김요나, 『총신 90년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1); 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 장로교 교회사』 (한국복음문서협회, 1983); 『한국교회 교단 형성사』 (인천: 임마누엘, 1985); 남영환, 『한국 교회와 교단: 고신교단사를 중심으로』 (서울: 소망사, 1988);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역사 편찬위원회, 2002).

³ 예를 들어 민경배는 합동 통합의 분열에 대한 기술에서 44회 총회 정회 직후 연동측이 먼저 바로 그날 밤 상경하여 연동측 총회를 별도로 연 사실은 생략한 채 승동측이 11월에 서울에서 연 총회에 대해 진술한다. 그리고 연동측은 이듬해인 1960년 2월에 통합 총회를 열었다고 기술한다. 마치 승동측이 독자적으로 연 총회가 시기적으로 먼저인 것처럼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분리주의적 행동을 먼저 한 것이 승동측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545.

⁴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318.

⁵ 김요나, 『총신 90년사』, 365. 보수 쪽은 주로 목회자들이 많았고 진보는 선교부 산하 기관에 시무하던 이들이나 외국 유학을 다녀 온 이들이 많았다고 김 요나는 첨언한다.

⁶ 김요나도 1958년 무렵 NAE 측이 환경직을 NCC쪽의 “대표 인물”로 보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총신 90년사』, 365.

⁷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 연구소, 1998), 85-86.

⁸ 장동민, 382.

⁹ 한승홍, 『한경직 목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93), 96.

¹⁰ 김병희 편저, 『한경직 목사』 (서울: 규장문화사, 1982), 33-34.

¹¹ 『설교 전집』, 12: 416-17.

- 12 김병희 편저, 『한경직 목사』, 33-34.
- 13 한승홍, 95.
- 14 한승홍, 94.
- 15 『총신대학교 100년사』, 559-600.
- 16 Ibid., 559.
- 17 Ibid.,
- 18 한승홍, 107-8; 『총신대학교 100년사』, 560.
- 19 한승홍, 107-8.
- 20 박형룡, 『신학난제 선편』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78), vol. 18: 131-32,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 연구』, 366에서 재인용.
- 21 『총신대학교 100년사』, 568-69
- 22 이성현, 319.
- 23 『총신대학교 100년사』, 58-81; 남영환, 『한국 교회의 교단: 교신교단사를 중심으로』, 475-76.
- 24 김요나, 『총신 90년사』, 363-64.
- 25 김인서, 『한국 교회는 왜 싸우는가』 (신앙생활사, 1961), 23-25, 이영현, 322에서 재인용.
- 26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365.
- 27 김 요나, 『총신 90년사: 1901-91』, 369.
- 28 이성현, 320.
- 29 『기독교공보』, 1958. 3. 17. 김 요나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서 박형룡 박사의 사후 대응이 그리 신사적이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박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이사회는 “그것이 고의가 아닌 사기”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장 사표는 반려하고 대신 “불법 지출한 삼천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박교장의) 청과동 주택 (당시 시가 800만원)을 내어 놓으라 했다.” 그렇게 하면 감동한 학생들 일천 명이 일인당 만환씩만 내면 그만한 주택을 다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에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박사와 사모가 “이 모 저모 고집을 부림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박사가 약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깨끗이 짐으로 명예를 지키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유감스러운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총신 90년사: 1901-91』, 364.
- 30 『기독교공보』, 1958. 3. 17.
- 31 『기독교공보』, 1958. 6. 23; 이성현, 320.

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3회(1958년) 총회록, 180쪽. 노진현 목사는 1904년 부산 구포에서 출생, 1934년 일본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경남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 직후부터 해방될 때까지 일본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1945년에 귀국 부산중앙교회를 설립, 1976년 은퇴할 때까지 시무했다. 1956년에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수학했고 1957년에 부총회장, 58년에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1961-72 총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봉사한 그는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교회의 가장 유능한 지도자들 중 하나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1), 630-31.

33 김 요나, 369.

34 『장로교신학대학교 100년사』, 367.

35 김요나, 369.

36 안광국, 『장로회 신학대학교 70년사』.

37 김요나, 370.

38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367, 370.

39 Ibid., 370.

40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서울: 도서출판 영문, 1996), 140; 남영환, 476.

41 김요나, 『총신 90년사』, 365;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370.

42 『장로교신학대학교 100년사』, 369, 367.

43 이성현, 323.

44 『장로교신학대학교 100년사』, 369.

45 남영환, 475-76.

46 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 장로교 교회사』 상, 127.

47 『총신대학교 100년사』, 577-78; 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 장로교 교회사』 상, 127-28. 이 두 문서에 의하면 박형룡 박사가 WCC 가입에 반대했다고 되어 있으나 58년 신학 지남에 발표한 그의 글은 그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 준다. 그는 단일 교회 운동에 반대하나 교회의 국제적 교류와 친선을 위해 가입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48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368.

49 정규오, 132. 정규오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찬반 주역들을 소개한다. 지지자는 미국 장로교선교회, 북장로교선교회, 호주 장로교 선교회 전원, 그리고 한경직, 전필순, 유호준, 김형모, 계일승, 안광국 등과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제 기관”의 종사자들 및 선교사들의 “보조를 받아 교역하는 자들”이었다. 반대자들은 이대영, 박형룡, 명신홍, 권연호, 이환수, 김윤찬, 조동진, 양화석, 정규오, 박병훈, 노진현, 김홍전 등이었다. 반대파의 실제 주역은 행정, 기획,

참모 역할을 한 박찬목, 조동진, 정규오였다고 한다. 정규오, 132-33.

50 박형룡,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리와 목적”, 『신학지남』 제25권 1집 (1958년), 11.

51 NAE는 1942년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서 처음 조직되었다. 다음 1948년 스위스 클라렌스에서 국제 대회가 소집되었고 1950년에 미국과 영국 두 곳에서 대회가 열렸다. 1951년에는 그것이 세계복음주의 친교회로 발전되면서 화란의 우드솔론(Woodsholoon) 에서 24개국 대표들이 모여 국제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NAE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48년 조선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고 정통을 사랑한다고 하는 51명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복음동지회로 발족했다. 1952년에 열린 하기 수양회에서 한국 NAE를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동년 12월에 WEF 총무를 통해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 1955년 3월, 조동진, 박창환, 황성수 등이 미국에서 온 NAE 총무 라이스 박사를 맞아 지부 설치론 논의한 바 “한국 교회가 본래 복음주의이므로 세계 복음주의 단체와 유대를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고 WCC운동과 NAE 운동이 상치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369.

52 『총신대학교 100년사』, 587.

53 김요나, 371.

54 박형룡,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리와 목적”, 『신학지남』 제25권 1집(1958),

55 1959. 8. 7. 대한예장 호남 지구 목사 수양회 회원 일동, “에큐메니칼 운동 반대, WCC 탈퇴 성명서,” 정규오, 153에서 재인용.

56 김요나, 373.

57 김요나, 374.

58 『장로교신학대학교 100년사』, 372.

59 김성준, 『한국기독교사』, 259.

60 김요나, 375.

61 김요나, 375; 『장로교신학대학교 100년사』, 372. 그러나 이 표현은 좀 애매하다. “당선자들의 득표수와 순위”에만 차이가 있었다면 당락이 뒤바뀐 경우는 없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후자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만일 단지 당선자들 사이에서의 득표 순위만 차이가 있었다면 양측의 총대 수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므로 그 착오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락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부정이나 실수였다고 보아야 한다.

62 이성현, 329.

63 김성준, 259.

64 남영환, 477-79. 이성현, 329. 김요나는 총신 90년사에서 아예 그것을 “부정 선거”라

고 단정한다. 375.

65 『장로교신학대학교 100년사』, 372.

66 허순길, 『고신대원 50년사』, 141쪽 각주.

67 『한국교회 교단 형성사』상, 17.

68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372.

69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373. 총회 서기 김상권 목사가 이 두 명단 중 유효한 것을 미리 심사 하여 선택하지 않고 총회에 둘 다를 제출한 것은 그 판단 자체가 어려웠던 탓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속한 계파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지적이 있다. 즉 그는 총회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NAE 지지 세력이 압도적인 총회가 정기노회에서 선출한 총대 명단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었다. 김요나, 379; 『장로교신학대학교 100년사』, 373. 김성준은 이 때 김상권이 두 개의 총대 명단을 올린 것이 자신의 “서기 재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추가적 사유를 소개한다. 『한국기독교사』 259.

70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373.

71 안광국, 『장로회신학대학교 70년사』,

72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373: 이성현, 332.

73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373: 이성현, 332. 김 요나, 380.

74 김요나, 380.

75 이성현, 332.

76 안광국 목사 (1909-1978)는 충북 보은 출신으로 송실 중학, 송실 전문을 졸업하고 1939년 평양신학을 졸업했다. 같은 해 용천 노회에서 임직하고 남만주에서 목회하다가 1941년 만주신학교 (일명 동북신학교)가 설립되자 서무과장으로 봉사했다. 해방 후 귀국 전북 이리시 신광교회에서 시무하다가 1953년 예장 총무로, 이듬해에는 교육부 총무 (1954-68) 및 기독교 방송 부국장을 역임했다. 68년에 부총회장, 이듬해 총회장에 피선되었고 북아현교회 위임 목사로 목회했으며 76-78년에는 기독교보 사장으로 일했다.

77 김요나는 노련한 정치가들인 에큐메니칼측 인사들이 총회장의 불법적인 사회를 목격한 후 다음 날도 다시 회의를 불법적으로 인도할 것을 예상하고서 미리 “불신임안”을 작성해 올만큼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감탄한다. 김 요나, 381.

78 총신대학교 100년사에는 기록에는 가부를 묻은 것이 안광국이 아니라 직전 총회장 전필순이었다고 되어 있다. 594쪽. 그러나 설령 그것이 직전 총회장인 전필순이었다고 해도 갑자기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침이 없이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양식을 의심받

는 일일 것이다.

79 『한국교회교단형성사』 상, 21; 이성현, 332.

80 김요나, 381.

81 『한국교회교단형성사』 상, 21.

82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375.

83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374.

84 당사자인 안광국은 임원 불신임안을 제기한 이유를 이렇게 서둘러 읽어 내려갔다고 나중에 기록하고 있다. I. 총회 장소를 교의로 대전으로 한 일 I. 총대 명부를 일 개월 전에 배부하지 않은 일 I. 경기노회 총대를 불법으로 처리한 일 I. 상회비를 납입 못한 노회는 총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일. 김 요나, 380에서 재인용.

85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44회 (1959년), 회록 27쪽.

86 『기독교공보』, (1959. 10.) 이성현, 336에서 재인용.

87 『기독교공보』, (1959. 10. 19.) 이성현, 336에서 재인용.

88 이영현, 318.

89 『기독교공보』, (1959. 10. 5.) 이영현, 335에서 재인용.

90 『기독교공보』, (1959. 10. 5.) 사설, 이영현, 333에서 재인용.

91 이영현, 326.

92 『기독교공보』, (1959. 10. 5.) 사설, 이영현, 333에서 재인용.

93. 칼빈은 교회의 권징을 중시했지만 교회의 표지들 가운데 하나로 보지는 않았다. 루터파 신앙 고백인 Augusburg 신앙고백, vii 항에 의하면 교회의 정의는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성례를 바로 집행하는 성도의 집단”이다. 그러나 The First Scots Confession(1560) 18장, Belgic Confession(1561) 29조는 권징을 교회의 세번째 “표지”로 본다.

Abstract**An Ecclesiological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Division
of the Hapdong Denomination
and the Tonghab Denomination****Nakhong Yang**

There are more than two hundred presbyterian denominations in Korea. Disorder and side-effects by schismatic spirit and too many denominations in Korea is unspeakable. Solution of the promiscuous existence of the denominations should begin at the repentance of the unjustifiable separation of the churches. For that purpose we need evaluate whether the process of the schism of the Korean churches was justifiable or not. I aim to pursue and analyse the process of the schism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1959.

Behind the separation of the two representative Korean presbyterian denominations there had been thirty-years (from 1920s to 1950s) old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Rev. Kyung Gik Han and prof. Hyung Ryong Park. In the early fifties, there happened an incident in which president Park lost school budget of thirty million Hwan. His

problem was that he wanted to build the theological school by the method of indirect bribery. For such ethical and administrative reasons he was forced to resign his office. The pressure for his dismissal was especially from the side of so-called “ecumenicals” whose leader was Kyung Gik Han. But the so-called “evangelicals” wanted to deter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partly because they had somewhat unrealistic and excessive fear of theological liberalization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d mainly because of the political consideration that president Park’s dismissal will result in the weakening of the ecclesiastical power of their group in the church.

One strategy of the “evangelicals” to achieve their goal was to criticize that the “ecumenicals” were theological liberals tolerating the communism. Their ground for such assault was that the ecumenicals wanted Korean Presbyterian Church to be a member of the World Council of the Churches. A more direct cause of the separation, however, was the scandal of unclean election in Kyunggi presbytery of the commissioners for the gener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at problem the two parties all showed several unreasonable conducts. After all both of them submitted their own lists of commissioners to the General Assembly.

At the General Assembly the evangelical party including the moderator acted unlawfully in several decisive points. Infuriated ecumenicals took the crucial step to the separation by having their own

“General Assembly” in other place (Yundong church) the next day. In that process the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helped the ecumenicals hold their own general assembly in Seoul by such methods as renting the train for them and issuing the pronouncement th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ecumenicals has the legitimacy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Keywords: Korean Presbyterian Church, separation, schism, Habdong, Tonghab, Ecumenicals, World Council of Churches, NAE (National Association of the Evangelicals), Kyung Gik Han, Hyung Ryong Park.